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 출사표(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이현숙입니다. 제가 금번 KLPGA부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 저변확대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벌분과위원장 직책으로서 오랜 프로생활과

본 협회에 몸담고 있으며 또한 동서울대학교 스포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강의는 6시간만 하고 있으며 학교와 산업체간의 대외협력을 주로 맡고 있어서 많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LPGA 회원들의 다양한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연계활동 등을 넓혀 사회에 이바지 하고 골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외현(外現)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존하는 시스템에는 위험과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대중들 특히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골프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 말로 골프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투어가 33개 있는 데에 비해 시니어 투어와 2, 3부 투어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또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능력 있고 관심 많은 훌륭한 회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어느 회사의 슬로건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후진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역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후배님들 그리고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계신 많은 프로님들.. 저는 우리 협회 회원들이 나이 40-50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 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한국여자골프 전성시대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면서 한국여자골프의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전성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제 남은 골프인으로서의 인생과 열정을 바치고 소통과 신뢰와 투명성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고가 되기보다 한국여자프로골프가 최고가 되기를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3월 09 일

작 성 자 : 이 현 숙 (의)

